

데이트 폭력 경험자들의 분노, 정신병적 경향성 및 중독성

서경현[†]

이경순

삼육대학교 교양교직과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데이트 폭력 경험과 분노, 정신병적 경향성 및 중독성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데이트 경험이 있는 440명(남=173, 여=267)의 대학생이었고 연령 분포는 17세에서 33세(M=20.89, SD=2.27) 사이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상대-특성 분노 표현 척도, 갈등척략척도, Eysenck 성격검사이고, 결과분석을 위해 분노, 정신병적 경향성 및 중독성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2(성별)×4(데이트 경험 유형) 이원변량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 및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이 데이트 폭력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특성 분노, 분노 억제 및 분노 표출 수준이 높았다. 데이트 폭력 피해만 경험한 사람은 데이트 폭력 가해만 경험한 사람이나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 모두를 경험한 사람보다 분노 통제 수준이 높았다. 정신병적 경향성에는 2(성별)×4(데이트 경험 유형) 이원상호작용이 있었다.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 및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는 남성이 데이트 폭력 경험이 없는 남성보다 정신병적 경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 및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이 데이트 폭력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중독성이 높았다.

주요어: 데이트 폭력, 특성 분노, 분노 억제, 분노 표출, 분노 통제, 정신병적 경향성, 중독성

서양에서는 데이트 폭력이 이미 심각한 사회 신건강은 물론 신체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문제로 대두되었고, 데이트 폭력이 청소년들의 정 미친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다(Levy, 1990). 우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서경현 (139-742)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26-21 삼육대학교 교양교직학부
전화: 02) 3399-3314 E-mail: khsuh@syu.ac.kr

리나라의 데이트 폭력 실태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몇몇 연구를 통해 밝혀졌고(서경현, 김봉진, 정구철, 김신섭, 2001; 서경현, 이영자, 2001), 마스크를 통해서도 알려졌다(중앙일보, 2001년 9월 14일자). 198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변인들이 많이 탐구되고 논의되어 왔으나 아직도 어떤 변인들이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구명되지는 않았다(Charkow & Nelson, 2000).

데이트 폭력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논의되어 온 변인으로는 가까운 관계에서의 호전성, 부모로부터의 폭력 피해, 데이트 폭력에 대한 태도, 과거의 폭력 가해 경험, 성격, 자극에 대한 민감성, 스트레스, 음주, 상대방의 공격적 행동, 갈등의 존재 여부, 관계에 대한 만족, 폭력의 이득에 대한 기대 등이 있다(Riggs & O'Leary, 1989). 그런데 데이트 폭력과 관련하여 주목받아 왔던 변인들은 주로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에 근거하고 있다(Riggs & O'Leary, 1989). 특히, 부모 사이에 발생하는 폭력을 목격한 경험 혹은 부모로부터의 폭력을 당한 경험이 데이트 폭력 가해와 피해를 예언할 수 있는 변인으로 가장 많이 논의되어 왔으나, 여러 연구에서 일관된 결과가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결론지을 수 없다(서경현 외, 2001; 서경현, 이영자, 2001; Comins, 1984; DeMaris, 1987; Follette & Alexander, 1992; Foo & Margolin, 1995; Foshee, Bauman, & Linder, 1999; O'Keefe, Brockopp, & Chew, 1986; Riggs & O'Leary, 1996; Riggs, O'Leary, & Breslin, 1990; Smith & Williams, 1992; Stets & Pirog-Good, 1987). Kaufman과 Zigler(1987)의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을 행한 사람들의 30% 정도

만이 부모 사이에 발생하는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나 부모로부터의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연구자들(Rosen, Bartle-Hering, & Stith, 2001)은 사회학습이론이 아닌 가족체계이론을 적용하여 데이트 폭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기도 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즉 데이트 폭력에 대한 태도가 데이트 폭력 가해는 물론 피해와도 관계가 있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었지만, 언제나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Arias & Johnson, 1989; Bookwala, Frieze, Smith, & Ryan, 1992; Henton, et al. 1983; O'Keefe, 1998). 데이트 폭력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연구들에서도 서로 일관된 결과를 얻지 못했다(서경현 외, 2001; 서경현, 이영자,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한 변인들과 가족체계이론에 근거한 변인들 외에 데이트 폭력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변인들을 탐색해보려는 것이다. 본 연구자들은 최근 연구 동향과 이성관계 및 폭력의 특성을 참고하여 데이트 폭력과 관련이 있을 만한 변인인 분노, 분노 표현, 정신병적 경향성 및 중독성을 채택하였다.

특성 분노가 청소년의 폭력, 특히 성폭력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 증명된 연구는 많다(Cornell, Peterson, & Richards, 1999; Myers & Monaco, 2000). 최근 들어서는 분노가 데이트 폭력에도 관계가 있다는 것이 몇몇 연구들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서경현, 2002; Dye & Eckhardt, 2000; Follingstad, Bradley, Laughlin, & Burke, 1999; Silver, Field, Sanders, & Diego, 2000). Follingstad 등(1999)의 연구에서는 데이트 상대를 조정하고 싶어하고 분노 표현을 억제하지 못하는

대학생이 데이트 폭력을 더 자주 행한다는 결과를 얻었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대학생은 특성 분노와 분노 표출 수준이 높고 분노 통제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Dye & Eckhardt, 2000). 한편, Silver 등(2000)은 분노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분노 수준이 낮은 청소년보다 가족과의 친밀감은 덜 느끼는데 반해 동성 친구뿐 만 아니라 이성친구들을 많이 사귀며, 데이트도 더 자주 한다는 것이 알려졌다. 한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최근 서경현(2002)의 연구에서도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특성 분노와 분노 표출 수준이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특성 분노와 분노 표출 수준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특성 분노는 남자 고등학생들의 데이트 폭력 예언변인으로 나타났다.

정신병적 경향성이 폭력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지만(Swanson, Estroff, Swartz, Borum, Lachicotte, Zimmer, & Wagner, 1997), 남녀간에 행해지는 폭력과도 관계가 있을까? 데이트 상대나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의 정신병적 경향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의 정신병적 경향성보다 유의하게 높다는 것이 자주 증명되었고(Gavazzi, Julian, & McKenry, 1996; Malamuth, 1986), 한 연구(Murphy, Coleman, & Haynes, 1986)에서는 Eysenck 성격 검사의 하위 요인인 정신병적 경향성이 남성의 강제적인 성적 행동과 정적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게다가 Vitanza, Vogel, 및 Marshall(1995)은 정신병적 경향성(Psychoticism)이 학대받은 여성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폭력 및 폭력 피해와 정신병

적 경향성과의 관계가 언제나 발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Farnham, James, & Cantrell, 2000), 지금까지 언급한 것처럼 정신병적 경향성이 데이트 폭력과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중독 될 수도 있다고 종종 이야기한다. 인간관계 중에서도 이성관계에서 나타나는 중독성이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중독된 사랑(addicted love)”을 어떻게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한 책이 많이 팔린 것을 보아도 그렇다(Halpern, 1994). 중독된 인간관계를 맺는 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성은 생존을 위하여 상대방이 꼭 필요하다는 믿음, 상대방과의 만족스런 경험 감소, 상대방을 제어하려는 노력과 관련된 낮은 자이존중감, 상대방에게 너무 조심스러움, 불만족스러운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것, 인간관계에 대한 강박적 사고, 사랑을 힘든 세상의 피신처로 인식하는 것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Nicarthy, 1991; Peele, 1988, Simon, 1982). 특히, 중독성이 강한 여성은 열악한 사회관계, 스트레스 및 각종 정신질환에 이환 될 가능성이 높고, 이성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수용하려는 경향성이 있다(Pearson, 1991). 중독성과 데이트 폭력과의 관계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증명된 연구들이 있었고(Henton, Cate, Koval, Lloyd, & Christopher, 1983; Nicarty, 1991; Norwood, 1985; Pearson, 1991), 최근에 Charkow와 Nelson(2000)은 의존 성향을 주요 변인으로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와의 관계를 증명했으나 그런 관계는 아주 복잡하게 해석될 수도 있다. Norwood(1985)와 Pearson(1991)은 관계에 중독 되는 여성은 폭력과

학대가 난무하는 역기능적인 집안에서 성장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 때문에 아주 가까운 사회관계에서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이런 여성은 상대방이 “구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남성에게 호감을 살 수 있으며, 남성이 이런 여성에게 쉽게 학대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Henton 등(1983)의 연구에서 26.5%의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폭력을 한 가지 사랑의 행동으로 해석했다. 그들은 학대를 위협의 징조로 보지 않고 사랑의 행동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대가 이성관계를 더 오래 지속시켰다. 실제로 관계에 의존적인 여성이 한 상대방과 더 오랜 기간동안 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Pearson, 1991). 그들은 이성과의 이상적인 인간관계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그런 관계를 위해 더 많이 노력할지 모른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을 학대하는 상대방에게는 자신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더 오랜 관계를 유지할지 모른다. 상대방이 학대를 하는 성향이 있을지라도 피해자는 자신이 어떤 실수를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관계에 의존적인 사람들은 처음부터 관계에서 힘의 불균형이 생기게 할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힘의 불균형이 관계를 정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할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Henderson, Bartholomew, & Dutton, 1997; Painter & Dutton, 1985).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수행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관계에 대한 의존을 측정하는 도구들을 사용하였다. 그런 척도의 문항 중에는 데이트 폭력

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성격 차원의 중독성을 변인으로 채택하였다. 성격 차원의 중독성을 변인으로 채택한 또 다른 이유는 탐색적으로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보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횡단적 연구로 명확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는 없겠지만, 성격이 비교적 단기간동안 학습되거나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데이트 폭력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데이트 폭력은 남녀간에 있어서 각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Archer, 2000; Foshee, 1996; Hird, 2000), 본 연구에서는 2(성별) × 4(데이트 경험 유형)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분노, 정신병적 경향성 및 중독성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이원변량분석을 하였다. 이전에는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에 더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데이트 폭력 피해와 관계되어 있는 변인들에도 같은 비중을 두고 연구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데이트 폭력 경험 집단을 분류하면서 가해만 경험한 사람, 피해만 경험한 사람, 그리고 가해와 피해 경험을 모두 한 사람들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데이트 폭력과 관계되어 있는 새로운 변인들을 찾아내어 구명해 보려는 것이다. 그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주요 문제를 제기였다. 첫째, 데이트 폭력 경험에 따라 특성 분노, 분노 표현, 정신병적 경향성, 및 중독성에 차이가 존재하는가? 둘째, 데이트폭력 경험과 특성 분노, 분노 표현, 정신병적 경향성 및 중독성과의 관계는 성별에 영향을 받는가? 이와 같이 제기된 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

국 대학생들이 이성을 사귀는 가운데 겪는 폭력의 실상을 파악하고, 그것이 분노 및 분노 표현, 정신병적 경향성, 및 중독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방 법

연구 참여자 및 절차

본 연구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2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와 검사지는 530명으로부터 회수하였으나 불완전한 자료는 제거시키고, 최종적으로 440명(남학생 173명, 여학생 267명)으로부터 얻은 자료만 분석하였다. 참여자들의 연령은 17세에서 33세($M=20.89$, $SD=2.27$)까지 분포되어 있다. 남학생들 중에 50%와 여학생들 중에 49%가 현재 사귀는 이성친구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남학생들이 사귀어 온 이성친구의 수의 평균은 3.16($SD=2.80$)명이었으며 여학생들이 사귀어 온 이성친구의 수의 평균은 3.21명($SD=3.17$)이었다. 데이트 폭력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보고한 학생이 203명(남=92, 여=111),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만 있다고 보고한 학생이 90명(남=19, 여=71),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만 있다고 보고한 학생이 21명(남=13, 여=8), 그리고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이 모두 있다고 보고한 학생이 126명(남=49, 여=77)이었다.

설문지와 검사지에 응답하기 전에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참여에 동의를 구하였으며 이들에게 개인정보의 누출이 없을 것이며 연구 참여를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고 알렸다. 각 참여자들이 설문에 소비한 시간에

는 약 20분이었다. 본 연구를 위한 통계분석은 SPSS 10.0 for Windows에 의해 실행되었고, 주요 통계분석은 2(성별: 남/녀)× 4(데이트 경험 유형: 무경험/가해 경험만/피해 경험만/가해 피해 경험 모두) 이원변량분석이었다. 데이트 폭력에는 언어 폭력은 배제되고 신체적인 폭력만이 포함되었다.

조사 도구

분노 척도

본 연구 목적에 따라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전경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er, 1997)에서 특성 분노와 분노 표현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는 Spielberger(1988)가 개발한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STAXI,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를 한국 문화에 맞도록 표준화한 도구이다. 이 척도는 분노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상태 분노(10 문항)와 특성 분노(10 문항)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노 표현을 측정하기 위하여 분노 억제(8 문항), 분노 표출(8 문항), 및 분노 통제(8 문항)를 각각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특성 분노와 분노 표현 척도(분노 억제, 분노 표출, 및 분노 통제)는 빈도로서 측정하도록 고안되었다(1--'거의 전혀 아니다,' 2--'가끔 그렇다,' 3--'자주 그렇다,' 그리고 4--'거의 언제나 그렇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의 Cronbach alpha 값은 각각 특성 분노 .87, 분노 억제 .75, 분노 표출 .80, 분노 통제 .77을 나타냈다.

갈등척락 척도

한국어로 번안된 Straus의 갈등척락척도 (Conflict Tactics Scales, 1979)가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과 데이트 폭력 피해 행동을 측정하는데 사용되었다. 본 척도는 자신이 갈등상황에서 이성친구에게 사용했던 척락(20문항), 이성친구가 갈등상황에서 자신에게 사용했던 척락(20문항)이 측정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없다', 2--'한 번', 3--'두 번에서 세 번', 4--'네 번에서 다섯 번', 5--'여섯 번 이상'으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11번에서 20번까지가 신체적 공격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갈등상황에서 신체적 폭력을 측정하는데 사용되었는데, '어떤 것을 던졌다', '떠밀거나 잡거나 찼다', '손바닥으로 때렸다', '발로 차거나 이로 물거나 주먹으로 쳤다', '어떤 것으로 때렸거나 때리려고 했다', '심하게 구타했다', '칼 혹은 다른 무기로 위협했다', '칼 혹은 다른 무기를 사용했다', '성적 행동을 하기 위해 물리적 힘을 사용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사용하여 성행위를 하려고 시도했다'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척도의 신체적 폭력을 측정하는 10문항의 Cronbach alpha값은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이 .87, 데이트 폭력 피해가 .89이었다.

Eysenck 성격검사

본 연구를 위해서 이현수(1997)가 한국에서 표준화한 Eysenck 성격검사(Eysenck Personality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Eysenck 성격검사는 6가지 하위영역(정신병적 경향성, 외향성-내향성, 신경증적 경향성, 허위성, 중독성, 범죄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정신병적

경향성(Psychoticism)과 중독성(Addiction)만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에서 정신병적 경향성이란 공격적이고 정서적으로 냉담하며 동정심이 부족하고 자신이나 타인의 감정에 대해 매우 둔감한 성격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신병적 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충동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다. 한편, 본 척도의 하위영역인 중독성은 섭식장애나 약물중독자에게서 높게 나타나는데, 중독성이 높은 사람은 위기 의식이 강하고 대인관계에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다. 각 문항은 진위형이고, 정신병적 경향성은 총 1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독성은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신병적 경향성 17개의 문항 중에 4문항은 '예'에, 13문항은 '아니오'에 답하면 정신병적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채점되며, 중독성 19개의 문항 중에 17문항은 '예'에, 2문항은 '아니오'에 답하면 중독성이 있는 것으로 채점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alpha값은 각각 정신병적 경향성 .65, 중독성 .77로 나타났다.

결 과

대학생들의 데이트 폭력 실태

보고된 데이트 폭력 실태의 남녀 차이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 점수는 신체적 폭력 경험을 묻는 갈등척락척도 문항들의 총점을 의미하는 것이고,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은 갈등척락척도에서 어떤 형태로든 한번 이상 신체적인 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을 했다고 보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1. 대학생들의 데이트폭력 가해 및 피해

변인	남(n=173)	여(n=267)	t
	M(SD)	M(SD)	
데이트폭력 가해 접수	13.35(7.19)	12.90(4.28)	.82
데이트폭력 가해 경험	.39(.49)	.55(.50)	3.34**
데이트폭력 피해 접수	12.84(6.19)	11.18(6.19)	3.80***
데이트폭력 피해 경험	.36(.48)	.32(.47)	.87

** $p<.01$, *** $p<.001$

데이트 가해 접수에는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데이트 도중에 갈등 상황이 연출되면 신체적으로 공격성을 표출했다고 보고한 대학생들은 남자들(39%)보다 여자들(55%)이 많았다. 보고된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에는 남녀 차이가 없었으나,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데이트 폭력 피해 정도가 더 심하다고 보고했다, $t(438)=3.80$, $p<.001$. 자기보고식 척도에 응답하는

양식에 남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나타난 데이트 폭력 가해와 피해에 대한 성차는 실제가 아닐 수 있지만, 대학생들 중에 30%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데이트 도중 폭력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한 것은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것이다.

표 2. 성별 및 데이트폭력 경험별 특성 분노, 분노 표현, 정신병적 경향성 및 중독성의 평균, 표준편차

성별	종속변인	데이트 폭력 경험			
		경험 없음 (n=92)	가해 경험만 (n=19)	피해 경험만 (n=13)	모두 경험 (n=49)
남	특성 분노	21.37(6.43)	22.26(4.82)	19.00(3.24)	24.33(6.69)
	분노 억제	16.53(4.70)	16.00(3.45)	17.39(3.78)	18.39(4.26)
	분노 표출	15.74(4.81)	15.90(3.16)	14.69(3.04)	18.78(4.71)
	분노 통제	20.67(4.43)	18.79(3.44)	22.69(4.73)	19.71(3.51)
	정신병적 경향성	2.65(2.32)	3.21(1.98)	3.62(3.12)	4.51(2.87)
	중독성	8.69(3.76)	9.00(3.73)	10.46(3.71)	10.98(3.97)
여	특성 분노	20.40(5.17)	21.69(5.10)	17.00(4.18)	21.82(5.15)
	분노 억제	15.73(3.52)	16.69(4.17)	15.63(2.97)	17.21(3.70)
	분노 표출	14.46(3.29)	15.18(3.45)	12.75(1.67)	16.14(3.52)
	분노 통제	19.41(4.01)	18.72(4.09)	21.50(3.86)	19.04(3.79)
	정신병적 경향성	2.01(1.91)	2.21(1.95)	2.00(1.31)	2.44(2.09)
	중독성	9.41(4.06)	9.62(3.37)	10.38(3.89)	10.86(3.75)

대학생들의 데이트 폭력과 분노, 정신병적 경향성 및 중독성

성별과 데이트 폭력 경험 유형에 따라 분노, 정신병 경향성 및 중독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분노 표출과 정신병적 경향성에

표 3. 성별 및 데이트 폭력 경험에 따른 특성 분노, 분노 표현, 정신병적 경향성 및 중독성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종속변인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 자승화	F	사후분석(Scheffe)
특성 분노	성(A)	113.87	1	113.87	3.69	
	폭력 경험(B)	627.60	3	209.22	6.77***	a<d*, c<d**
	A × B	57.93	3	19.31	.63	
	오차	13345.09	432	30.89		
	전체	217012.00	440			
분노 억제	성(A)	28.94	1	28.94	1.80	
	폭력 경험(B)	217.60	3	72.53	4.51**	a<d**
	A × B	41.80	3	13.93	.87	
	오차	6951.24	432	16.09		
	전체	129453.00	440			
분노 표출	성(A)	133.94	1	133.94	8.97**	
	폭력 경험(B)	518.23	3	172.74	11.57***	a<d***, b<d**, c<d**
	A × B	202.11	3	16.47	1.10	
	오차	6449.94	432	14.93		
	전체	115061.00	440			
분노 통제	성(A)	31.96	1	31.96	1.97	
	폭력 경험(B)	202.11	3	67.37	4.16**	b<c**, d<c**
	A × B	19.06	3	6.35	.39	
	오차	6994.15	432	16.19		
	전체	177047.00	440			
정신병적 경향성	성(A)	88.13	1	88.13	18.28***	
	폭력 경험(B)	98.66	3	32.89	6.82***	a<d**
	A × B	39.56	3	13.19	2.74*	
	오차	2083.16	432	4.82		
	전체	5379.00	440			
중독성	성(A)	3.98	1	3.98	.28	
	폭력 경험(B)	283.39	3	94.46	6.71***	a<d***
	A × B	15.22	3	5.07	.36	
	오차	6082.86	432	14.08		
	전체	48218.00	440			

* p<.05, ** p<.01, *** p<.001

주. a = 데이트 폭력 경험이 없는 집단, b =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만 보고한 집단

c =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만 보고한 집단, d = 데이트 폭력 가해와 피해를 모두 보고한 집단

서 성별의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모든 종속변인에서 데이트 폭력 경험 유형의 주효과가 유의했다. 그리고 정신병적 경향성에서는 성별과 데이트 폭력 경험 유형의 유의한 이원 상호작용이 발견되었다, $F(3, 432)=2.74, p<.05$.

특성 분노에서 데이트 폭력 경험 유형의 유의한 주효과가 있었는데, $F(3, 432)=6.77, p<.001$, 사후분석 결과, 표 3에 나타난 것과 같이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이 모두 있는 사람이 데이트 폭력 경험이 없는 사람($p<.05$)과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만 있는 사람($p<.01$)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특성 분노를 보고했다. 분노 억제에서도 주효과가 있었는데($F(3, 432)=4.51, p<.01$),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이 모두 있는 사람이 데이트 폭력 경험이 없는 사람($p<.01$)보다 더 높은 분노 억제 수준을 보였다. 데이트 폭력 경험 유형에 따라서는 분노 표출에 가장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F(3, 432)=11.57, p<.001$.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이 모두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이 분노 표출을 한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분노 통제에서도 유의한 주효과가 나타났는데($F(3, 432)=4.16, p<.01$),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만 있다고 보고한 사람이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만 있다고 보고한 사람($p<.01$)과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이 모두 있다고 보고한 사람($p<.01$)보다 분노 통제 수준이 더 높았다.

데이트 폭력 경험 유형에 따라서 정신병적 경향성에도 차이가 있었다, $F(3, 432)=6.82, p<.001$. 사후분석 결과,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이 모두 있는 사람이 데이트 폭력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더 강한 정신병적 경향성을 보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정신병적 경향성에서는 성별과 데이트

트 폭력 경험 유형의 이원 상호작용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남녀로 나누어 데이트 폭력 경험 유형에 따른 정신병적 경향성의 단순주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남성의 경우에는 데이트 폭력 경험 유형에 따라서 정신병적 경향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F(3, 169)=5.86, p<.01$, 여성의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F(3, 263)=.76, n.s.$.

데이트 폭력 경험 유형에 따라서 중독성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F(3, 432)=6.71, p<.001$,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이 모두 있는 사람이 데이트 폭력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더 강한 중독성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중독성이 높은 사람이 데이트 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논 의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보고한 데이트 폭력의 실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데이트 폭력도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데이트 폭력은 개인의 정신적 건강은 물론 신체적 건강에도 심각한 해(害)를 주고 건강하지 못한 가정을 양산하여 우리 사회를 불건전한 사회로 이끌 수 있다(중앙일보, 2001년 9월 14일자). 이런 데이트 폭력을 중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을 두말 할 나위가 없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도 그런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제한점은 데이트 폭력의 실태가 자기보고식 설문에 의해 보고된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남학생과 여학생은

데이트 폭력의 경험을 묻는 자기보고식 설문에 응답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남자 대학생들보다 더 많은 여자 대학생들이 데이트 도중에 갈등 상황이 생기면 신체적인 공격을 사용했다고 보고한 것이 실제 한국 대학생들의 데이트 폭력 비율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그런가 하면 서양의 경우에는 면접을 병행하여 조사한 연구들도 있었는데, 그런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 행동에 남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Molidor & Tolman, 1998).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들에서 남성들이 데이트 폭력을 더 많이 행한다는 결과를 얻은 적은 없었다. 그와 반대로 여성이 남성보다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을 더 많이 행한다는 결과를 얻은 연구가 두 번 있었다(Foshee, 1996; Plass & Gessner, 1983). 하지만, Archer(2000)는 메타분석 연구를 통해 여성의 데이트 폭력보다 남성의 데이트 폭력이 질적으로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런 양적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데이트 폭력의 질적인 면을 설명하기란 쉽지 않지만, 필자가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 심각한 피해자는 대개 여성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서양에서는 면접을 통하여 데이트 폭력을 조사한 연구가 많다. 본 연구자들도 면접을 통해 데이트 폭력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면접을 통하여 우리나라 사람으로부터 데이트 폭력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에는 커다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우선 연구자의 경험상 미국 대학생들과 한국 대학생들은 이런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이나 태도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아마 서양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전에 이성관계에서 겪은 부정적인 경험이 노출되면 이후의 이성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같다. 이런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연구자들은 면접 방식보다는 설문지를 통한 방법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한 방식은 연구 결과의 해석에 대한 제한점을 가지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 문화에서 이런 제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발견된다면, 데이트 폭력의 성차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데이트 폭력 경험에 따라서 특성 분노, 분노 억제, 분노 표출 및 분노 통제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밝혀졌다. 이런 결과로 우리는 특성 분노 수준과 분노 표현 방식이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 행동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지만 데이트 폭력 경험이 분노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 모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데이트 폭력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높은 특성 분노, 분노 억제 및 분노 표출을 보였고,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만 있는 사람은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 모두를 한 사람과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만 한 사람보다 분노 통제를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사람이 높은 수준의 특성 분노를 가지고 있으며 분노 표출을 더 많이 하고 분노 통제는 잘 하지 못한다는 앞서 수행된 일련의 연구들(Dye & Eckhardt, 2000; Follingstad et al., 1999)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고, 특히 한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서경현(2002)의 연구 결과와도 일관된 것이다. 앞서 수행된 연구들

은 대부분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사람과 가해 경험이 없는 사람을 비교한 것이지만, 본 연구에는 데이트 폭력 경험자들은 가해 집단, 피해 집단, 그리고 가해 및 피해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그 결과 좀 더 구체적인 결과를 얻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데이트 폭력 가해와 피해를 모두 경험한 사람이 분노 역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이 단순히 분노를 표출하거나 갈등 상황을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과 상대방의 폭력을 참아오다가 어느 시기에 분출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의 횡단적인 연구로 분노와 데이트 폭력과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는데는 무리가 있지만, 데이트 폭력 경험이 분노에 영향을 주었다면 그런 분노에 대한 중재가 필요하고, 분노와 분노 표현이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주었다면 데이트 폭력의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분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분노와 데이트 폭력간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종단적 연구를 포함한 다양한 추후 연구가 수행되기를 바란다.

정신병적 경향성에서는 성별과 데이트 폭력 경험 유형의 이원 상호작용이 발견되었고,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을 함께 가지고 있는 남학생이 데이트 폭력 경험이 전혀 없는 남학생보다 높은 정신병적 경향성을 보였다. 이것은 정신병적 경향성이 높은 남성들이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Gavazzi 등(1996)의 연구와 Malamuth(1986)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이지만, 남성이 여성에게 행하는 폭력 중에서도 데이트 폭력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본 연구에서 거의 처음으로 시도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은 것

이다. 정신병적 경향성은 여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와는 관계가 없다고 증명된 것은 Gavazzi 등(1996)과 Malamuth(1986)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정신병적 경향성이 확대받은 여성에게서 후유증을 나타낼 수 있다는 Vitanza 등(1995)의 주장은 본 연구를 통해서도 지지되지 않았다.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중독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결과는 서론에서 언급된 일련의 연구들(Henton et al., 1983; Nicarty, 1991; Norwood, 1985; Pearson, 1991)과 일관된 것이고, 특히 Charkow와 Nelson(2000)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처럼 중독성이 강한 남녀들은 사랑을 힘든 세상의 피신처로 생각하며 이성을 사귀는 것이 생존을 위해 가장 절실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활동들은 철회하고 상대방에 너무 의존하는 습성이 데이트 폭력으로 이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리고 데이트 도중에 상대방에게 폭력적인 피해를 보았다고 해도 자신이 희생하여 상대방이 더 좋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소유하고 제어하려는 목적으로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중독성은 성격 변인이고 섭식장애자나 약물중독자들에게서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매개변인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독성이 높은 사람은 음주량이 많고 그로 인해 폭력 가해 혹은 피해 경험을 많이 하였을 수 있다. 한편, 정신병적 경향성과 중독성은 분노와 같은 정서적 변인이 아니고 성격 차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폭력 경험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볼 때, 정신병적 경향성과 중독성이 데이트 폭력 경험의 원인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결과는 앞으로 데이트 폭력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정신병적 경향성과 중독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데이트 폭력 예방을 위해서도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 경험이 분노, 정신병적 경향성, 그리고 중독성과 관계가 있다고 나타났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한번의 횡단적 연구를 통해 정신병적 경향성 혹은 중독성과 데이트 폭력과의 관계에 대한 완벽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분노, 정신병적 경향성 및 중독성과 같은 변인들과 데이트 폭력의 관계를 구명하기 위한 발판을 제공하는 탐색적 연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다양한 방식을 통한 추후 연구가 절실하다.

1996년 미국 질병조절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를 필두로 하여 서양에서는 현재 많은 데이트 폭력 중재 및 예방 프로그램들이 실시되고 있으며, 그런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연구들(Weisz & Black, 2001)도 발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트 폭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서 본 연구 결과가 어느 정도 공헌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서경현 (2002). 청소년들의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사회학습적 변인들과 분노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 1-15.

서경현, 김봉진, 정구철, 김신섭 (2001). 대학생들의 연애평력과 예측변인. 대한여성건강학회지, 2, 75-98.

서경현, 이영자 (2001). 고등학생들의 연애평력의 예측변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 91-106.

이현수 (1997). 아이젠크 성격검사 요강. 서울: 학지사.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er (1997).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분노와 혈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 60-78.

중앙일보 (2001, 9, 14). 데이트 폭력이 늘고 있다. 50면.

Archer, J. (2000). Sex differences in aggression between heterosexual partners: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26, 651-680.

Arias, I., & Johnson, P. (1989). Evaluations of physical aggression among intimate dyad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4, 298-307.

Bookwala, J., Frieze, I. H., Smith, C., & Ryan, K. (1992).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A multivariate analysis. *Violence and Victims*, 7, 297-311.

Charkow, W. B., & Nelson, E. S. (2000). Relationship Dependency, Dating Violence, and Scripts of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3, 17-28.

Comins, C. A. (1984). Courtship violence: A

- recent study and its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Paper delivered at the Second National Conference for Family Violence Researchers, Durham, NH*, 7-10.
- Cornell, D. G., Peterson, C. S., & Richards, H. (1999). Anger as a predictor of aggression among incarcerated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7*, 108-115.
- DeMaris, A. (1987). The efficacy of a spouse abuse model in accounting for courtship violence. *Journal of Family Issues, 8*, 291-305.
- Dye, M. L., & Eckhardt, C. I. (2000). Anger, irrational beliefs, and dysfunctional attitudes in violent dating relationships. *Violence Victims, 15*, 337-350.
- Farnham, F. R., James, D. V., & Cantrell, P. (2000). Association between violence, psychosis, and relationship to victim in stalkers. *Lancet, 355*, 199.
- Follette, V., & Alexander, P. C. (1992). Dating violence: Current and historic correlates. *Behavioral Assessment, 14*, 39-52.
- Follingstad, D. R., Bradley, R. G., Laughlin, J. E., & Burke L. (1999). Risk factors and correlates of dating violence: the relevance of examining frequency and severity levels in a college sample. *Violence Victims, 14*, 365-380.
- Foo, L., & Margolin, G. (1995). A multivariate investigation of dating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0*, 291-305.
- Foshee, V. (1996).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 dating abuse prevalence, types, and injuries. *Health Education Research, 11*, 275-286.
- Foshee, V. A., Bauman, K. E., & Linder, G. F. (1999). Family violence and the perpetration of adolescent dating violence: Examining social learning and social control process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331-343.
- Gavazzi, S. M., Julian, T. W., & McKenry, P. C. (1996). Utilization of the Brief Symptom inventory to discriminate between violent and nonviolent male relationship partners. *Psychological Reports, 79*, 1047-1056.
- Halpern, H. M. (1994). *Finally Getting It Right*. New York: NY: Bantam Books.
- Henderson, A. J. Z., Bartholomew, K., & Dutton, D. G. (1997). He loves me; he loves me not: Attachment and separation resolution of abused women. *Journal of Family Violence, 12*, 169-191.
- Henton, J., Cate, R., Koval, J., Llyod, S., & Christopher, F. (1983). Romance and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Issues, 4*, 467-482.
- Hird, M. J. (2000). An empirical study of adolescent dating aggression in the U. K. *Journal of Adolescence, 23*, 69-78.

- Kaufman, J., & Zigler, E. (1987). Do abused children become abusive paren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 186-192.
- Levy, B. (1990). Abusive teen dating relationship: An emerging issue for the 1990s. *Response*, *13*, 3-12.
- Malamuth, N. M. (1986). Predictors of naturalistic sexual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953-962.
- Molidor, C. E., & Tolman, R. M. (1998). Gender and contextual factors in adolescent dating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en*, *4*, 119-134.
- Murphy, W. D., Coleman, E. M., & Haynes, M. R. (1986). Factors related to coercive sexual behavior in a nonclinical sample of males. *Violence and Victims*, *1*, 255-278.
- Myers, W. C., & Monaco, L. (2000). Anger experience, styles of anger expression, sadistic personality disorder, and psychopathy in juvenile sexual homicide offenders. *Journal of Forensic Science*, *45*, 698-701.
- Nicarthy, G. (1991). Addictive love and abuse: A course for teenage women in love. In B. Levy (Ed.), *Dating violence: Young women in danger* (pp. 240-257). Seattle, WA: The Seal Press.
- Norwood, R. (1985). Women who love too much: When you keep wishing and hoping he'll change. New York: Pocket Books.
- O'Keefe, M. (1998). Factors mediating the link between witnessing interparental violence and dating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3*, 39-57.
- O'Keefe, M., Brockopp, K., & Chew, E. (1986). Teen dating violence. *Social Work*, *31*, 456-468.
- Painter, S. L., & Dutton, D. (1985). Patterns of emotional bonding in battered women: Traumatic bonding. *International Journal of women's Studies*, *8*(4), 363-375.
- Pearson, J. (1991). Relationship dependent women: Their views on symptoms and recovery. *Virginia Counselors Journal*, *19*, 3-13.
- Peele, S. (1988). Fools for love: The romantic ideal, psychological theory, and addictive love. In R. Sternberg, & M. Barnes (Eds.), *The psychology of love* (pp. 159-190).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Plass, M. S., & Gessner, J. C. (1983). Violence in courtship relations: A southern sample. *Free Inquiry in Creative Sociology*, *11*, 198-202.
- Riggs, D. S., & O'Leary, K. (1996). Aggression between heterosexual dating partners: An examination of a causal model of courtship aggress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1*, 519-540.

- Riggs, D. S., O'Leary, K. D., & Breslin, F. C. (1990). Multiple predictors of physical aggression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5*, 61-73.
- Rosen, K. H., Bartle-Haring, S., & Stith, S. M. (2001). Using Bowen Theory to Enhance Understanding of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Dating Violence. *Journal of Family Issues, 22*, 124-142.
- Simon, J. (1982). Love: Addiction or road to self-realization, a second look.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oanalysis, 42*, 253-261.
- Silver, M. E., Field, T. M., Sanders, C. E., & Diego, M. (2000). Angry adolescents who worry about becoming violent. *Adolescence, 35*, 663-669.
- Smith, J. P., & Williams, J. G. (1992). From abusive household to dating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7*, 153-165.
- Stets, J. E., & Pirog-Good, M. A. (1987).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0*, 530-548.
- Swanson, J., Estroff, S., Swartz, M., Borum, R., Lachicotte, W., Zimmer, C., & Wagner, R. (1997). Violence and severe mental disorder in clinical and community populations: the effects of psychotic symptoms, comorbidity, and lack of treatment. *Psychiatry, 60*, 1-22.
- Vitanza, S., Vogel, L. C., & Marshall, L. L. (1995). Distress and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abused women. *Violence and Victims, 10*, 23-34.
- Weisz, A. N., & Black, B. M. (2001). Evaluating a sexual assault and dating violence prevention program for urban youths. *Social Work Research, 25*(2), 89-101.

원고 접수: 2002년 9월 10일

수정원고 접수: 2002년 12월 3일

게재 결정: 2002년 12월 13일

Anger, Psychoticism, and Addiction in Dating Violence inflictors and recipients

Kyung-Hyun Suh

Kyoung-Soon Lee

Sahmyook University

The researchers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dating violence and anger, psychoticism, and addiction. The participants were 440 Korean college students (173 males and 267 females) whose ages ranged from 17 to 33 ($M=20.89$, $SD=2.27$). The questionnaires and psychological tests used in this research included the following: Straus' Conflict Tactics Scale, Spielberger's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and Eysenck's Personality Inventory. Research design was a 2 (sex) \times 4 (types of dating violence experience) 2-way MANOVA. Results indicated that people who had inflicted and received violence in their dating relationship had significantly higher trait anger, anger-in, and anger-out than people who had not experienced dating violence, while people who received dating violence showed higher anger control than people who had inflicted dating violence or who had inflicted and received dating violence. There was a 2-way interaction in psychoticism by sex and types of dating violence experience. Males who had inflicted and received dating violence had significantly higher psychoticism than males who had not experienced dating violence. And it was found that people who had inflicted and received dating violence were likely to show higher addiction than people who had not experienced dating violence.

Keywords: dating violence, trait anger, anger-in, anger-out, anger control, psychoticism, addiction